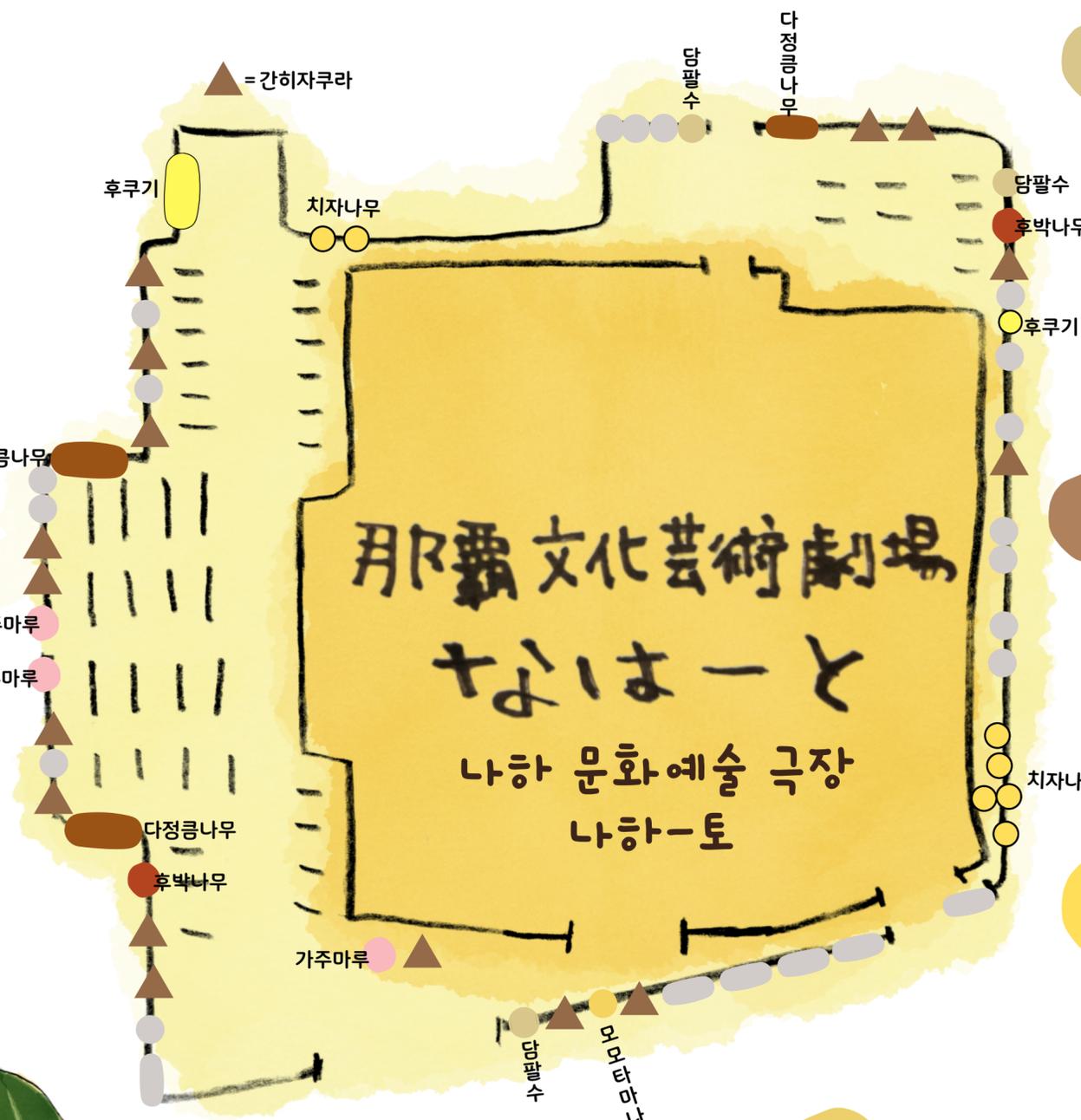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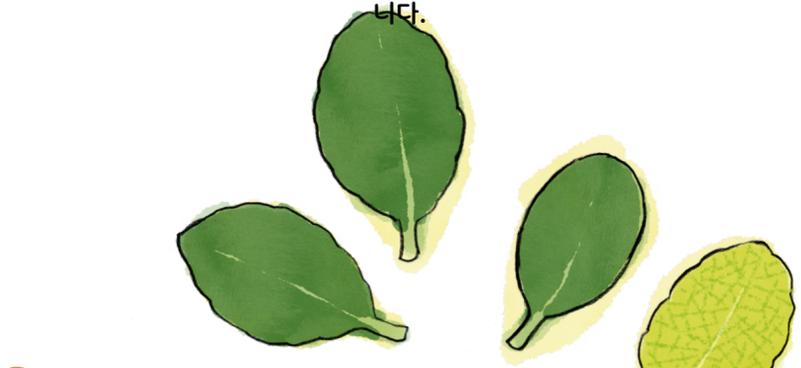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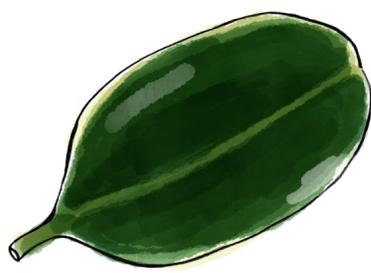
なはーと 染木 MAP

なはーと 染木 MAP
염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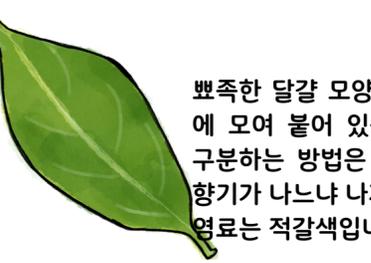
후쿠기(복나무)

곧고 역센 줄기와 짝 모여든 두툼한 잎사귀가 특징입니다. 옛날부터 오키나와에서는 집과 마을의 방풍 대책을 목적으로 후쿠기를 심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앞면과 달리 뒷면은 맛맛하고 연한 황록색입니다. 9월쯤에 열리는 노란 열매는 박쥐가 즐겨 먹습니다. 염료는 노란색입니다.



다정큼나무

오키나와에서는 '티카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잎의 뒷면을 보면 미세한 그물 모양의 잎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지 끝에 수레바퀴처럼 잎사귀가 모여 있어 꽃이 매화와 닮았다는 이유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염료는 적갈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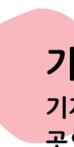
후박나무

뾰족한 달걀 모양의 잎사귀가 가지 끝에 모여 붙어 있습니다. 다른 나무와 구분하는 방법은 코끝을 찌르는 강한 향기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입니다. 염료는 적갈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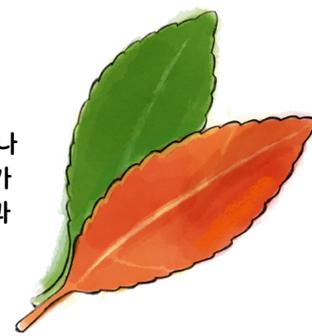
가주마루(상록 나무)

기지무나(오키나와에서 전해지는 정령)가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나무가 작을 때는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껍고 광택이 나는 잎사귀와 작은 열매가 특징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줄기에서 뿌리를 내려 자신의 몸을 지탱합니다. 염료는 분홍색입니다.



담팔수

오키나와에 거의 없는 단풍이 드는 나무의 하나입니다. 추워져도 잎사귀가 안 떨어지는 상록 나무이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붉게 단풍이 듭니다. 염료는 옅고 밝은 갈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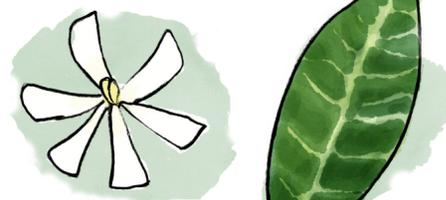
간히자쿠라(벚꽃)

일본에서 제일 먼저 피는 벚꽃입니다. 2월쯤에 진분홍색 꽃이 핍니다. 나뭇잎은 가장자리가 갈쭈갈쭈하고 끝이 뾰족합니다. 염료는 갈색입니다.



치자나무

오키나와에서는 풍차를 뜻하는 '가지마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가는 잎사귀에 평행하게 늘어난 공은 잎맥이 특징이며, 6월쯤에 흰 꽃이 핍니다. 열매에서 노란색 염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모모타마나

오키나와에서는 고바테이시, 구화디-사-라고도 합니다. 열매 모양이 '울트라맨' 얼굴과 닮았으며 부채처럼 큰 잎사귀가 특징적입니다. 염료는 칙칙한 노란색입니다.



나하-토가 식재에 담은 메시지

식물은 옛날부터 문화를 육성하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지역만의 경치를 형성 시켜 산신(三線)과 옷칠 등의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식물과 문화의 연결 관계를 느낄 수 있게 옛날부터 오키나와에 자생하는 식물을 중심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직물 염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8 종류의 나무 이외에도 류큐 흑단 나무, 상사수, 조롱나무, 아카기 나무, 크로톤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나하-토 바깥쪽에 있는 '슈리오리'(首里織)를 모티브로 한 피막(被膜)과 함께 어떤 직물을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하면서 산책하는 것은 어떨습니까?



나하-토 공식 홈페이지

식재 디자인 다다 히로시

작성 나하시 문화예술 극장 나하-토
그림 호카마 아사오

* 사용하느 염료에 따라 색깔이 바뀝니다.